

조병수. 「주해 데살로니가전서」,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8.

조오지 엘돈 래드. 「하나님 나라의 복음(The Gospel of the Kingdom)」, 신성수 역, 한국 기독교 교육연구원, 1982.

존 스토티. 「리더십의 진실」, 정옥배 역, IVP, 2002.

존 파이퍼. 「묵상 ④」, 정영재 역, 좋은 씨앗, 2001.

페리 G. 다운즈. 「기독교 교육학개론」, 임성욱 역, 은성, 1998.

핑크. 「산상수훈(상)」, 지상우 역, 엠마오, 1986.

홍인규.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유니온, 2001.

평화(shalom):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즐김

Peace(shalom):
Harmony and Enjoyment in his/her relationship with
God, with Self, with Fellows, with Creation(Nature)

김성수 / 교육학 박사,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Prof. Dr. Sung-Soo Kim

I. 서론	- 55
II. 평화(shalom)의 일반적 의미	- 55
III.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정의	- 58
IV. 평화(shalom)의 성경적 의미	- 61
V. 평화를 위한 교육	- 71
VI. 맺는 말	- 76

주요어 | 평화, 평강, 샬롬, 정의, 애동, 평화교육, 월터스토프

요약문 |

평화(샬롬)의 이상은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지고의 가치이다. 평화의 성경적 의미는 단순히 적대감이 없거나 심리적인 만족의 상태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적 평화 개념은 정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의가 없이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평화는 정의를 훨씬 넘어 선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창조세계와의 관계 문제이다. 월터스토프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평화 속에 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즐기며, 물리적 환경 안에서의 삶을 즐기며, 자신은 물론 이웃과의 삶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경적 관점의 평화는 이사가가 예언한 바와 같이 이새의 즐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평화가 도래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특별히 평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은 정의 추구의 차원과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하기 위한 세상에 대한 지배라는 두 차원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요컨대, 기독교교육은 문화적 사명과 해방의 사명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교육은 첫째로, 창조세계의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하고 역기능적 인간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둘째로 평화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셋째 평화를 찬양하도록 가르치고, 넷째 평화가 없는 곳에서는 언제나 애동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기독교교육은 애동의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고 진정한 애동을 위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김성수 교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남아공화국 포츨스트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에서 수학한 후, 현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물금교회 협동목사로 봉사하고 있다. 주요 역, 저서로는 「기독교교육 원론」(소망사), 「내일로 가는 교회」(영문), 「가르침은 예술이다」(IVP) 등이 있다.

Abstract

Peace(shalom): Harmony and Enjoyment in his/her relationship with God, with Self, with Fellows, with Creation(Nature)

The ideal of peace(shalom) is the highest value that every humankind should pursue. Biblical meaning of peace(shalom) is not merely the absence of hostility or psychological felling of being content. Biblical meaning of shalom is first of all intertwined with justice. There is no shalom without justice. But shalom goes beyond justice. Shalom is the human being dwelling at peace in all his or her relationships: with God, with self, with fellows, with nature. As Nicholas P. Wolterstorff emphasizes, “to dwell in shalom is to enjoy living before God, to enjoy living in one’s physical surroundings, to enjoy living with one’s fellows, to enjoy life with oneself.” This kind of Biblical shalom comes only through Jesus, the shoot of which Isaiah spoke when he describes the anticipated shalom with a flourish of images of harmony(Isa. 11:1-2). We are, however, not to stand around waiting for shalom to arrive. Christian education for peace(shalom) should have the two dimensions of a struggle for justice and the pursuit of increased mastery of the world so as to enrich human life. Christian education should work for both a cultural mandate and a liberation mandate. That work takes, first of all, the form both of working to develop creation’s potentials and working to

heal the dysfunctions in our relationships. Second, we should pray to God for the coming shalom. Christian life requires a dimension of prayerful waiting. Third, we have to celebrate such shalom as comes our way. And last, we have to teach our students to lament the absence of shalom wherever we find it absent. Christian education must exhibit and teach for lament.

Keywords: peace, shalom, justice, lament, peace education, Wolterstorff

I. 서론

모든 개인이나 집단은 평화(shalom)의 이상을 추구한다.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한 특징 역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평화는 인류 모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목표. 기독교 역시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이다. 그러나 무엇이 평화이며, 어떤 상태가 평화의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평화를 지지하고 평화교육을 주창하는 사람들 간에도 그 의미가 그렇게 명료하지 않은 것 같다. 평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개념과악마저 제각기 다른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평화의 본질적이며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평화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II. 평화(shalom)의 일반적 의미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화의 의미를 감정적 차원의 느낌 정도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만족스런 느낌 또는 행복하고 안락한 감정 등을 평화의 상태로 생각한다. 이러한 평화는 갈등과 투쟁이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심리적 감정 상태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평화 개념은 주로 전쟁이 없는 상태로 규정되어 왔다. 평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전쟁에 대한 대칭 개념으로 일관되어 있고,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주로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측면으로 한정시켜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평화의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일차원적이고 소극적인 인

식에 의하면, 평화란 전쟁이 없는 평화의 보전 상태로 간주된다.

이에 반하여 비판적 평화 연구는 보다 더 적극적인 평화 개념을 개발하였다. 이 적극적인 평화 개념에 따르면, 평화란 '인간에 의한' 폭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조적인' 폭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인간에 의한 폭력'이란 직접적이고 명백한, 타자에 의한 인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손상으로부터 살해에 이르는 폭력을 의미한다. 전쟁은 이 '인간에 의한 폭력'의 가장 포괄적인 형태이다. '구조적인 폭력'이란 지배, 예속, 착취의 여러 형태들에 의하여 인간의 생의 보전과 그의 실존을 전개시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들을 보류하는 사회적 상황을 의미한다.¹⁾

그러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문화적 측면과 사회정치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논의를 심화시켜야만 한다. 그래서 갈통(Johan Galtung)은 평화의 개념을 '소극적 평화 개념'과 '적극적 평화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소극적 평화 개념'이란 "조직화된 집단적 폭력형태의 부재" 혹은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법과 질서를 지향하는 자들이 주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소극적인 평화 개념은 권력의 안정화와 현 상태의 견고화를 위한 평화가 될 위험이 있으며 피지배자가 지배자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지배자를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갈통은 보았다. 그러나 갈통은 이와 같은 소극적 평화 개념 자체를 거부하기 보다 오히려 이 개념

1) 윤웅진, 「기독교 평화교육론」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p. 209.

의 불충분성을 비판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 정의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창하려고 하였다.

갈통은 적극적인 평화 개념을 "적극적이며 조화를 이룬 협동적 관계들의 현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그는 후에 종전의 견해를 수정하고 적극적 평화 개념을 사회정의 개념과 동일시하면서 다른 개념 규정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이러한 개념의 수정은 슈미드(Herman Schmid)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갈통은 '통합과 협동'으로 이해된 적극적 평화 개념은 갈등 집단을 지나치게 통합적이고 좌우 대칭적으로 이해한 것으로서 동서 갈등 혹은 그것과 결합된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슈미드의 비판에 동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

1955년 반등에서 채택한 "세계평화와 협력의 추진에 관한 선언"의 10가지 원칙 역시 평화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 1) 기본적 이권 및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존중
- 2) 모든 국가의 주권 및 영토보존의 존중
- 3) 모든 인종의 평등 및 대소 모든 국민의 평등 승인
- 4)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개입 또는 간섭 중지
- 5)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국을 방위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 존중
- 6) 첫째 어떠한 대국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 집단적 방위기구를 이용하지 말 것, 둘째 어떠한 국가도 타국에 압력을 가하지 말 것

2) 앞의 책, pp. 92-93.

- 7) 어떠한 나라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침략적 행위와 침략적 위협 또는 힘의 사용을 피할 것
- 8) 교섭, 조정, 중재, 재정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서 모든 국제적 분쟁을 관계국이 선택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
- 9) 우리들의 공동이익과 협력 증진
- 10) 정의와 국제적 의무 존중

지금까지 살펴 본 평화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주로 갈등과 폭력과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평화 개념의 적극적인 의미 역시 권리 존중과 국가간 협력 차원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무엇이 평화의 구체적인 의미인지 명료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이나 비판적인 접근 모두 궁극적으로는 월터스토프(Nicholas P. Wolterstorff)의 지적과 같이 '자배에 의한 자유'(freedom by mastery)와 '자기 결정의 자유'(freedom of self-determination)의 동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³⁾ 진정한 평화의 이상을 추구할 수가 없다.

III.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정의

평화의 본질적 의미는 정의(justice)의 의미와 관계없이 규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의의 표현과 같이 정의 없이 참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평화를 주지 못하는 정의란 유사 정의나 강요된 정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⁴⁾ 평화는 '정의의 열매' 이므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정의롭게 행동해야만 한다(이사야 32:17; 참고. 시편 85:10). 월터스토프 역시 평화(shalom)의 문제를 논하면서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그 이유는 정의가 샬롬을 성취하는 한 조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 표현에 의하면 "평화는 정의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각 사람은 평화로운 가운데 정의를 누리며 자신의 권리를 누린다. 정의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평화는 정의 이상의 것이다."⁵⁾

월터스토프는 부정의(injustice)의 비극을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비극들 중 하나로 보았다.⁶⁾ 방대한 선택의 범위를 구가 하면서 자국의 시민들은 거대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바로 그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수 십억에 달하는 사람들을 영속적인 가난의 상태에 머물도록 만들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정치테러와 고문이 그들의 항존적 환경이 되도록 지원하거나 그러한 불의를 자행하는 부정의한 현실이 바로 현대사회의 한 심각한 비극이라는 것이다.⁷⁾

그렇다면 월터스토프에게 있어서 정의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의 개념을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냉담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비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 정의와 관련하여

3) Nicholas P.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3, p. 69.

4) 정웅섭, <교회의 평화교육>, 김성재 편,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서울: 풀빛, 1990, p.154.

5) Wolterstorff, Ibid.

6) Ibid., p 42.

7) Ibid., p. 42.

여 연상되는 것은 재판 과정, 법적 절차, 감옥 등과 같은 단어들이다. 그러나 월터스토프에 의하면 정의는 본질상 권리와 관계가 있다. 월터스토프에게 있어서 정의와 권리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

물론, 권리라는 단어 역시 정의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소 냉담하고 비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들릴 수 있다. 권리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상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천부적 인권, 유엔 회원국의 권리, 권리 목록 등과 같이 다소 추상적이며 고양된 권리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월터스토프는 권리의 의미를 정의와 관련하여 아주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한 개인이 어떤 것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라고 할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합법적인 권리, 그것을 실제로 향유함에 대한 주장, 그리고 그 어떤 것을 누림에 있어서 직면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장받을 것에 대한 주장이다.⁹⁾

첫째, 권리는 다른 이에 대해 윤리적으로 합법적인 권리이다. 권리는 다른 이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둔다. 모든 책임이 권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권리는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권리는 제기된 그것을 실제로 누림에 대한 주장이다.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제로 향유하지 못하면 그 법은 공허한 것이

8) *Ibid.*, p. 160.

9) *Ibid.*, pp. 82-84.

다. 셋째, 권리는 그 어떤 것을 누릴 때에 일반적이거나 심각한, 그러나 고쳐질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질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권리를 위협에 대해서 보장하라는 주장이라고 보는 것은 권리가 사회에서 약자와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권리를 월터스토프는 자기 방어권, 자유의 권리, 발언과 참여의 권리, 그리고 생계의 권리라는 4가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 월터스토프는 권리의 문제를 추상적이며 고답적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인간 존재의 아주 섬세한 조직과 같이 가장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한다.

IV. 평화(shalom)의 성경적 의미

정의의 개념이 평화라는 개념의 전제 조건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한다면 평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 개념인가? 신약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평화('에이레네') 개념은 평화의 일반적인 개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평화는 또한 심리적으로 안락한 느낌, 즉 마음의 평안으로서 이해되기도 한다.¹⁰⁾ 여기서 마음의 평안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의 성경적 의미는 단순히 마음이 편안하다는 정도의 감정적 문제가 아니다. 평화는 무엇보다도 관계의 문제이다. 하나님

10) 롬 15:13

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창조세계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긴장과 적대감이 없는 상태가 평화의 상태이다. 인간의 제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이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없다. 예를 들면, 한 나라에서 비민주적 생산으로 인해서 수탈적 지배계급과 피수탈적 피지배계급이 서로 갈등상태에 있는 경우 계급투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전자는 후자를 폭력장치 또는 교육제도와 매스미디어 같은 이타올로기적 장치를 통해서 교묘하게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적인 사회질서는 거의 전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설령 일시적인 평화적 질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비교적 영속적인 평화가 되지 못하고 강압에 의한 일시적이며 표피적인 평화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긴장과 갈등은 한 나라의 계급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간에도 발생한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를 출현케 하였고, 제국주의 국가들은 약소민족의 영토를 침탈하여 식민지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 제2차대전 전까지의 강대국의 식민주의는 피지배 민족의 해방적 투쟁을 자극하게 되고, 지배국은 무력으로 애국적 봉기를 진압하였다. 그리고 억압된 민족의 문화를 불구화 또는 말살하는 교육문화정책을 쓰기 때문에 양자간에 갈등은 격화되었고, 결국 평화적 사회질서는 무너지게 되었으며, 피압박 민족은 민족적 독립의 쟁취만이 국제적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깨닫게 되었다.¹¹⁾

11) 이 규환, 〈신식민주의 극복을 지향하는 평화교육〉, 김 성재 편,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서울: 풀빛, 1990, p. 50.

평화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긴장과 갈등 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이 긴장과 갈등이 단순히 개인과 국가들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가 깃들이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자신과의 관계와 창조세계와의 관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 관계, 마힘의 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는 다음과 같은 평화는 바로 이와 같은 차원의 평화를 의미한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었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떤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¹²⁾

그러나 성경적인 평화 개념은 단순히 적의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평강 가운데 거하는 상태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의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 즐김(enjoyment)의 차원에서 보다 더 풍요하고 깊이 있게 이해된다.¹³⁾ 적극적인 즐김이 없는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

12) 이사야 11:6-8.

13) Wolterstorff, *Ibid.*, p. 79.

“한 국가는 주변 다른 국가와 평화로울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가난으로 비참할 수 있다. 평화 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즐기며 물리적 환경 속에 사는 것을 즐기는 것이며 그 동료와 함께 거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며 자신과의 삶을 즐기는 것이다.”¹⁴⁾

그러나 성경적인 평화 개념은 이와 같은 소극적이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인 비판적 평화 개념을 훨씬 능가하며 훨씬 더 심오하다. 윌터스틀프는 평화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 창조세계(자연),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라는 네 가지 관계에서 올바르게 화목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즐기는 삶을 의미평화의 진정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 평화의 개념은 책임적인 세계이다. 평화가 있는 곳에 우리는 서로서로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자연에 대해 책임을 규정한다. 한편 평화는 그것 이상을 의미한다. 관계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에만 평화는 완전히 존재한다.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 물론 자신에 대하여- 우리의 책임을 이행한다할지라도 기쁨은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 고통이 남을 수 있다.”¹⁵⁾

성경적 평화 개념의 기본적 의미는 개인과 공동체의 온전함, 곧 모든 관계 차원에서의 안녕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평화 개념은 결코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표현하던 것이 아니었고 철저히 정상적인 일상적 삶을 표현하였다.

첫째, 평화는 하나님과 올바르게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또 그분에게 봉사하고 그 분을 즐거움으로서 기쁨을 얻을 때 구체화된다. 평화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인간들이 인정할 때에 비로소 완성된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성취된다.¹⁶⁾

둘째, 평화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올바르게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인간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구체화된다. 평화는 사회가 온통 자기 자신의 일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할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을 때” 바로 그 때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말씀이 진실이 된다.¹⁷⁾

셋째, 평화는 창조세계와 더불어 올바르게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우리의 물리적 환경에서 성취와 기쁨을 얻을 때에 구체화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그 날에 대해서 말했다.¹⁸⁾

16) G. I. Williamson, *The Shorter Catechism*, “Question 39 and Answer”, Vol. II: Questions 39-107, Nutley,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7, p. 1.

17) 이사야 32:16-17.

18) 이사야 32:18.

14) *Ibid.*, pp. 69-70.

15) *Ibid.*, p. 176.

넷째, 평화는 또한 자신과 더불어 올바르게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 자신과 더불어 사는 삶을 즐길 수 있을 때 완성된다.

이와 같은 성경적 평화 개념을 한 준상은 '에이레네'(eirene)의 개념과 'shalom'의 개념이 하나로 통합되고 변형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개념, 말하자면 자유와 해방에 기초한 사회구원 정신으로 표현한다.

“평화 속에 내재된 해방은 ‘-- 으로부터 벗어남’의 과정과 활동이며, 더 나아가서 ‘-- 을 위한 벗어남’의 과정이나 활동을 일컫는, 그래서 온전성을 추구하는 총체적 노력을 의미한다.

‘-- 으로부터 벗어남’의 과정이나 벗어나는 활동으로서의 해방은 평화를 위한 해방의 내적 차원이 되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소외, 억압, 지배,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반면, ‘-- 을 위해’ 전개되는 해방의 과정이나 활동은 평화를 위한 해방의 외적차원으로서 그것의 핵심은 평화추구에 있게 된다.”¹⁹⁾

그러나 성경적인 평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shalom’의 개념은 그 속에 이미 ‘에이레네’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정의라는 조건을 shalom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보는 월터스토포프의 관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만약 자신에게 정당한 일이 당연하게 허가되지 않는다면, 만약 상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약 다른 사람들이 자신

19) 한준상, <평화교육을 위한 사회교육>, 김성재 편, *Ibid.*, p. 113.

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때 삶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들과 상대 사이에 적대감이 없다고 할지라도 역시 삶은 깨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운명에 만족하도록 느끼게 한다고 해도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그들의 노예 상태에 대해서 만족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평화는 없었을 것이다. 남아공 화국에 있는 흑인들이 그들의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느낀다 해도 거기에 평화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는 정의가 없을 때 상처를 입는 윤리적 공동체가기 때문이다.”²⁰⁾

그러나 shalom은 또한 윤리적 공동체를 넘어 책임의 세계로 나아간다. 왜냐하면 shalom은 단순히 동료 인간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인간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즐기는데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연에 대한 관계, 그리고 자신에 대한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shalom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shalom은 윤리적 관계를 넘어서 책임의 관계로 나아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shalom은 또한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무리 책임 있게 행동한다고 해도 기쁨이 없을 때 shalom은 여전히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

20) Wolterstorff, *Ibid.*, p. 71.

대, 질병을 치유할 방도가 없을 때 거기에는 언제나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살롬은 궁극적으로 과학 기술과도 관계가 있다. 요컨대 살롬은 동료 인간과의 윤리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창조세계를 향한 책임의 세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쁨을 향유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도식을 갖고 있다.²¹⁾

이와 같은 평화가 역사 속에 완전히 도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우리에게 될 살롬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²²⁾

이세의 줄기란 천사가 그의 탄생을 축하하여 노래한 바로 그분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세의 줄기를 ‘평강의 왕’ 이라고 불렀으며, 신약의 저자들은 그를 평화의 사자로 묘사하고 있다.²³⁾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을 평화를 실현시킬 메시야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망의 맥락

21) 신 영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P. Wolterstorff)의 기독교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2004학년도, pp. 61-65.

22) 이사야 11:1-2.

23) 눅 1:79, 2:29; 행 10:36; 엡 2:17.

에서 이해한다. 누가는 예수의 탄생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²⁴⁾ 예수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1-2을 인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사명을 유대인들의 메시야 대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함으로써 스스로를 평화의 메시야로서 드러내었다.

예수는 치유한 환자를 떠나보내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한다.²⁵⁾ 그의 치유행위는 ‘평화’의 현실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세의 줄기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상 평화의 나라이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는 그 날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24) 눅 2:14.

25) 막 5:34.

젓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²⁶⁾

이 평화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의 도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평화의 메시지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체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고 하였다.²⁷⁾ 폭력에 토대를 둔 부정의한 체제의 영속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정의에 토대를 둔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월터스토포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평화가 역사 속에 완전히 도래하는 것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선물이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따금씩 찾아드는 평화 역시 하나님의 선물의 차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사역하고,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은 이 평화이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주위에 둘러서서 살림이 도래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분으로 일하는 사역자, 즉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다.”²⁸⁾

26) 사 11:6-8.

27) 눅 12:51.

28) Wolterstorff, *Ibid.*, p. 72.

V. 평화를 위한 교육

비록 진정한 평화의 성취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이 평화의 도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평화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사를 통해서 볼 때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평화교육의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일이 아니다.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미 15세기 코메니우스의 저작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로티우스(Grotius), 홉스(Hobbes), 설리(Sully), 그리고 칸트(Kant) 역시 국가의 본질 및 상호관계에 관한 평화교육적 관심을 보였다. 루소(Rousseau)의 저작은 평화교육의 발달사에서 시금석이 되었다. 항구적인 평화에 대한 그의 이상이 「사회계약론」, 「에밀」 등의 저작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루소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은 페스탈로찌(Pestalozzi)는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인간 도덕성의 회복과 그것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프뢰벨(Froebel)은 루소와 페스탈로찌의 사상을 아동교육에 적용시켜 평화교육의 가능성과 역량을 강화시켰다. 19세기 이후 전개된 현대식의 평화교육 관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영향 즉,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고전적 교육자의 영향과 둘째, 19세기 중엽에 대두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평화교육 사상에 영향을 준 사회주의의 조류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마카렌코(Makarenko)에 의해 주도된 고전적 맑스주의 계통, 둘째, 민주적 사회주의 계통, 셋째, 반군국주의 운동으로 나타난 톨스토이(Tolstoy)류의 무정부주의 계통이 그것이다.²⁹⁾

29) 한준상, *Ibid.*, pp.115-116.

유네스코(UNESCO)는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³⁰⁾

- 1) 인류는 세계의 시민이라는 UN 헌장의 정신구현의 교육
- 2) 모든 국가와 국제적 조직 안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정신 육성의 교육
- 3) 모든 국가가 세계의 문화에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개성적 문화의 교육
- 4) 각 민족의 삶의 방식과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교육
- 5) 인류의 공동적인 유산 존중의 교육
- 6) 국제적 분쟁의 국제적 해결은 당사자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국제적 문제해결방식 원리와 교육
- 7) 세계정부와 세계평화를 기하는 책임감 육성의 교육
- 8)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국제이해의 교육

서독에서의 평화교육은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의식적 차원보다 사회체제의 문제, 국내-국제간의 전쟁, 갈등, 폭력 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식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서독에서의 평화교육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실천적 과제: 평화, 폭력, 갈등 등의 문제가 특히 이 원자시대의 중요문제로 대두되었기에 모든 나라가 교육을 통하여 이것을 다루어야 한다.
- 2) 실천적 기초: 인류와 자원이 역사상 최초로 멸절의 위기에 있음

30) 김성재, <한국 평화교육의 이념과 원칙>, 김성재 편, *Ibid.*, pp. 15-16 재인용.

을 인식시킨다.

- 3) 주제의 4차원적 편성: 개인-사회-자연-우주의 4차원으로 주제를 편성한다.
- 4) 기초주제의 부각: 평화개념을 구성하는 기본요인을 공격성, 폭력, 비폭력, 갈등, 갈등해소, 편견, 협조 등으로 부각시킨다.
- 5) 규범적 기초: 평화라는 덕목은 개인도덕, 사회도덕, 종교도덕 등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됨을 강조한다.
- 6) 방법적 기초: 평화교육은 그 논제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따라서 인문, 사회, 자연 등 모든 과학의 방법을 원용해야 한다.
- 7) 연구분야: 연구주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시작하여 모든 단체와 학교, 청소년의 근로현장, 해외계약 노무자의 작업현장, 사회환경, 자연환경 등 모든 국면에서 찾아야 한다.
- 8) 귀속성: 평화교육은 특정단원, 특정교과로 구성함은 물론이요, 모든 교과에서 다루며, 모든 교육이론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 9) 종합과학성: 평화교육학은 그 주제의 성격상 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조직적 연계에서만 가능하다.
- 10) 시각의 축소지양: 평화교육은 한 차원 혹은 한 주제로 축소해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³¹⁾

서독의 평화교육은 개인, 사회, 자연, 우주의 4차원에서 인간성의 문제와 함께 폭력, 갈등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

31) *Ibid.*, pp. 16-17.

고 시도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네스코의 평화교육보다 적극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추상적이며 제1세계의 관점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월터스토포프는 정의와 살림의 교육 목적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론적 차원에서 추상적인 방식으로 논의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 개념과 관련하여 교육의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서 논의하고 있다.³²⁾ 그는 기독교 교육이 정의와 살림을 위한 교육목적에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³⁾ 첫째,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정의와 살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둘째,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살림의 도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정의와 살림의 구현은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정의와 살림을 완전히 실현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의 차원을 요구한다. 셋째,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정의와 살림이 모습을 드러낼 때 이를 축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넷째,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살림이 없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살림의 없음을 애통해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월터스토포프는 정의와 살림을 위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살림

32) Nicholas, P. Wolterstorff, *Educating for Life: Reflections o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2, pp. 278-279.

33) *Ibid.*, pp. 262-263.

이 없음을 애통해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 교육은 애통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고 애통을 위해 가르쳐야 한다. 울부짖음, ‘이래서는 안 된다’ 는 울부짖음을 억누르지 말고 허용해 주어야 하며 심지어는 격려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서지고 왜곡된 관계의 치유를 위한 투쟁은 가슴으로부터 느끼는 애통이 나타날 때만 진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학생들에게 지구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과 문화와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랑해 본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사실상 고통과 슬픔의 가능성과 확실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개는 죽고, 사랑하는 친구는 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의해 감추어지고, 사랑하는 그림은 찢어질 가능성과 확실성을 가진다.”³⁴⁾

월터스토포프가 정의와 살림을 위한 교육의 목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논의하는 이유는 그가 정의와 살림의 의미를 이론적이며 추상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인간 실존의 섬세한 조직에 스며들어 있는 정의와 부정의의 차원에서 아주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터스토포프는 만약 교사가 단지 고상한 천부적 인권과 그 침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학생들은 이것을 비꾸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쉽게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부정의의 문제를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와

34) *Ibid.*, p. 263.

더불어 시작하거나 교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한다.³⁵⁾

VI. 맺는 말

평화는 인류 모두가 화구하고 추구하는 목표며 이상이다. 성경은 정의와 평화를 실현시키려는 여호와 하나님과 부정의와 평화 파괴를 초래하는 인간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의 역사를 보여 주고 있으며, 결국에는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며 평화의 실현은 곧 구원의 완성이다.

성경은 평화의 의미를 단순히 마음의 평정 상태를 의미하는 정도의 심리적 차원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평화 개념의 성경적 의미는 개인의 심리적 차원이나 종교적 수준에서의 위안과 평안, 그리고 단순한 민족적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키는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성경적 관점의 평화는 이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 인간 본연의 삶에 대한 총체적 전망이다. 평화는 본질상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과 창조 세계(자연)의 조화와 즐김을 의미한다. 평화는 무엇보다도 관계의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창조세계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긴장과 적대감이 없는 상태가 평화(shalom)의 상태이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의 평화는 단순히 적의가

35) 신 영순, *Ibid.*, pp. 94-98.

없는 상태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진정한 평화의 성취를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김(enjoyment)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평화는 이사가가 예언한 것과 같이 이새의 즐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평화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을 가꾸고 다스리는 문화적 명령과 함께 해방의 명령, 즉 '풀어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홍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의 줄을 꺾는 것...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이사야 58:6-7)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본질 그 자체와도 같은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재, "한국 평화교육의 이념과 원칙", 김 성재 편,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서울: 풀빛, 1990.

신영순, <니콜라스 윌터스토프(Nicholas P. Wolterstorff)의 기독교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2004.

윤용진, 「기독교 평화교육론」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이규환, <신식민주의 극복을 지향하는 평화교육>, 김 성재 편,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서울: 풀빛, 1990.

정웅섭, <교회의 평화교육>, 김 성재 편,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서울: 풀빛, 1990.

한준상, <평화교육을 위한 사회교육>, 김 성재 편,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서울: 풀빛, 1990.

Williamson, G.I., *The Shorter Catechism*, "Question 39 and Answer", Vol. II: Questions 39-107, Nutley,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7.

Wolterstorff, Nicholas P.,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3.

Wolterstorff, Nicholas P., *Educating for Life: Reflections o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2.

고신 교단선교 창구일원화 정책에 대한 고찰

A Study of the Single Window Missionary Strateg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Kosin)

이복수 / 신학박사: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Prof. Dr. Bok-Soo Lee

I. 들어가면서	- 83
II. 창구일원화의 개념이해	- 83
III. 교단선교 창구일원화 형성의 배경	- 85
IV. 교단선교 창구일원화의 장점	- 87
V. 교단선교 창구일원화의 보완 및 장려사항	- 93
VI. 창구일원화 정책의 확장으로서 개 교회 선교사역들의 협력기구 조직화	- 98
VII. 마무리하면서	- 103